

근대에서 현대까지...인천엔 특별함이 있다

중앙광장 작업실, 창고갤러리로 변신
송도 트라이보울, 300석 규모 공연장
상수도 펌프장, 공연연습장으로 재탄생

그곳을 찾은 날은 추추추적인 늦은 봄비가 달았다.

인천 중구의 차이나타운을 향해 터벅터벅 오르막을 걷다보면 멀리 청일 조계지 경계계단이 눈에 들어온다. 조계지는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통상과 거주를 하던 지역이었다. 주로 개항장에 설치됐다. 이 계단은 1880년대 일본과 청나라 조계의 경계선 역할을 했다. 2002년 인천시 기념물로 지정됐다.

계단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걷다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면 오늘 소개할 '그곳'이 모습을 드러낸다. "차이나타운에 이런 데가 있었어?" 싶을지도 모르겠다. 부산, 원산에 이어 조선의 세 번째 개항장이었던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잠을 깨고, 예술과 자유가 거친 숨을 몰아쉬는 공간. 바로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복합공간이 거기에 있다.

문화를 견고 예술을 만질 수 있는 살아있

는 공간이자 거리이다. 이곳에서는 되도록 천천히 걷고, 눈과 귀를 활짝 열어야 한다. 고색창연한 건물, 그리고 역사의 훼손이 없도록 세심하게 리모델링된 건물들의 본채부터가 방문객의 마음에 기대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안긴다.

옛 일본회사 건물, 대한통운 창고 등 1930~40년대 건축물이 있던 단지를 매입해 리모델링했다. 이 녹록한 공간은 현재 전시장, 공연장,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장, 박물관 등으로 채워졌다.

●창고갤러리에서 만나 근대문학관으로

그럼, 이제 걸어보자. 인천아트플랫폼은 2개 단지, 13개동으로 이루어진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 있다. 중앙광장, B동 전시장, 공동 전시장, C동 공연장은 푸벽이 관람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창고갤러리를 오픈했다. 원래는 입주 예술가들을 위한 공동작업실이었는데 관람객이 늘어나자 창고갤러리로 변신했다. 플랫폼의 중앙광장에 위치해 관람객들

에게 '만남의 장소'처럼 여겨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일정이 빠듯해도 한국근대문학관을 들어가 봐야 한다. 1890년대 근대계몽기부터 1948년 분단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대문학의 역사를 한 눈에 훑을 수 있다. 최남선, 이광수, 김소월, 한용운, 나도향, 염상섭, 백석 등 국어 교과서에서 봤던 근대문학의 거장들이 남긴 작품의 원본, 복각본이 보는 이의 눈을 동그랗게 만든다. 아랑수의 '무정(1925)', 한용운의 '님의 침묵(1934)',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 원본이라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철도 여정을 노래한 창가집 '경부철도노래(최남선·1908)'는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들어볼 수 있다. 희귀한 경험이다.

●트라이보울이 품은 보석같은 공연장

인천아트플랫폼과 한국근대문학관을 보고 차이나타운에 올라가 달큰 고소한 짜장면 한 그릇 먹고도 시간이 남았다면 자리를 옮겨보자. 송도국제도시 쪽으로 가면 인천광역시 랜드마크인 송도 트라이보울이 웅장 요염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지구에 착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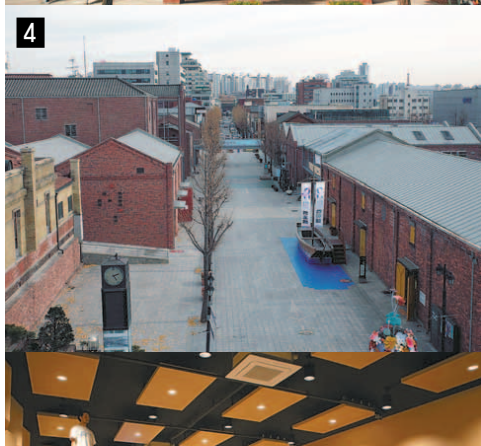
한 외계 비행체같은 트라이보울의 내부로 들어가 보자. 상상 속의 공연장과 전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재즈 피아노 트리오, 북 하나 놓고 부르는 판소리가 참 잘 어울릴 듯한 공간. 원형무대를 객석이 포근하게 안은 듯한 300석 규모의 공연장은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예쁘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남구 도화동에 위치한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건물이 한눈에도 예사롭지 않다 싶었더니 상수도 가압 펌프장을 리모델링해 연습공간으로 꾸몄단다. 실제로 연습실 한 구석에 헐지 않은 펌프 시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렇게 반나절 동안 걸어서 만난 인천은 우리가 알던 얼굴보다 열 배는 더 잘 생긴 인천이었다.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할 정도다.

만약 이제라도 차이나타운 나들이 계획을 갖고 있다면, 문화와 예술이 둥근 식탁 위의 코스요리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멋진 장소를 절대 놓치지 마시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와 짜장면을 사랑하는 그대에게 부디 첫 방문의 행운이 함께 하길.

인천 |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5년내 세련된 문화도시로 변모할 것”

인천문화재단 최진용 대표 인터뷰

“인천시와 시민들 문화발전 의지 커
예술정거장·뮤지엄파크 등 추진중”



최진용 대표

전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우 리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 기반시설을 운영 중이다.

인천문화재단의 최진용 대표(71)는 예술 및 창작자에 대한 애정과 지원,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국내 문화예술계에 기여해온 사람이다. 한국문화행정연구소 소장, 서울문화예술학회관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노원문화예술화관 관장과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거쳐 2016년 제5대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재단을 운영하면서 보람이 느껴질 때가 있다면.
“인천시의 적극적인 문화발전 의지와 시민의 문화적 잠재력이 놀라운 폭발력을 보이고 있어 일하면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낀다. 앞으로 5년 정도면 인천은 문화적으로 세련되고 매력적인 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올해 재단이 역점을 두고 있는 문화사업은.
“재단의 미션은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이야기거리를 문화콘텐츠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올해는 신진·중견·원로 예술인 지원트랙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자 한다. 인천의 공공장소를 활용한 예술정거장 프로젝트,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에 따른 녹지공간과 문화시설 조성, 섬마을예술프로젝트 등 시

민들이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도심 곳곳에서 섬 지역까지 확장해나가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도심을 문화로 재생하고 영종·송도·청라 신도시의 문화품격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뮤지엄파크 건설, 국립문자박물관 건립, 아트센터인천 개관, 해양박물관 건립 등 대규모 문화시설 설립과 1000여 개의 작은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인천광역시와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문화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천을 문화로 행복한 도시, 문화로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2019년에 재단은 15주년을 맞는다. 300만 도시, AI시대, 3만 불 국민소득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인천 | 양형모 기자

인천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883년 개항 이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최초의 관문이자 다문화의 장이었던 인천은 깊은 역사와 함께 독특하고 개성적인 문화를 지닌 도시이다. 인천의 예술과 문화를 대표하는 핫 플레이스를 차례로 탐방했다. **1**한국문단 거목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근대문학관 상설전시실 **2**인천 송도의 랜드마크로 인기 높은 트라이보울 **3**인천아트플랫폼의 스튜디오동 **4**인천아트플랫폼 외부 전경 **5**공연예술연습공간에서 연습 중인 아티스트들. 사진제공 | 인천문화재단

스위스 명품브랜드 몽크로스 MONCROSS SWITZERLAND



1장 59,800원 ● 사이즈 : 95 / 100 / 105 / 110 ● 색 상 : 냉감 집업자켓 - 네이비(군청)

스위스 명품브랜드 몽크로스가 스판텍스의 쿨링원단으로 빠른 땀배출과 유연한 스판성을 갖춘 냉감 집업자켓과 냉감 티셔츠를 출시했다.

냉감 집업자켓과 냉감 티셔츠는 아주 얇고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여 입을 듯 안 입을 듯 착각을 일으키는 상품이며, 항균, 항취, 흡한, 속건, 자외선차단 기능의 우수한 냉감섬유로 착용시 월등한 통풍력으로 시원한 냉감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 밀도로 편직된 원사를 사용하여 실크와도 같은 부드럽게 떨어지는 터치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가볍고 시원한 고급원단으로 입는 순간 끈적임 없는 쾌적함이 오래가며, 아웃도어 뿐 아니라 이너웨어, 스포츠웨어로도 안성맞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뛰어난 신축성, 쾌적한 착용감, 부드러운 촉감으로 가볍고 시원한 원단의 냉감 집업자켓과 냉감 티셔츠는 고급 원단으로 입는 순간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시켜 시원하고 쾌적함이 오래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수한 신축성으로 활동성을 극대화한 냉감 집업자켓과 냉감 티셔츠는 자연스러운 핏감으로 고온 다습한 날씨에도 몸에 들러붙지 않아 등산, 골프, 낚시 등 레저 활동 및 일상복으로도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최고의 제품이며, 양방향으로 탄성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운동 시에도 편안한 착용감 및 활동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냉감 집업자켓의 판매가격은 1장 59,800원이며 2018년 신상품 출시기념으로 구매하시는 모든 분에게 사은품으로 냉감 티셔츠 4종을 무료로 준다.

냉감 집업자켓 구매자 전원!
사은품 - 냉감 티셔츠 4종 무료 증정



● 사이즈 : 95 / 100 / 105 / 110
● 색 상 : 냉감 티셔츠 - 화이트(흰색) / 그레이(회색) / 다크그레이(진회색) / 블루(청색)

문의 1661-3921 전국 어디든지 택배비 무료배송(제주도·도서산간지역 포함)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패션연출 가능
농협 : 123-456-7788 / 예금주 (주)홍쇼핑코리아 ※ 각종신용카드 5개월 무이자할부 가능